

이완, 리움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첫 영예

기사입력 2014-05-23 18:54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삼성미술관 리움이 '아트 스펙트럼 작가상' 제1회 수상자로 이완(35)을 선정했다.

23일 심사위원들은 "이완의 영상작품 '메이드 인' 프로젝트는 작가의 역량을 보여 주는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며 "아시아 근대화에 대한 사회의식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은 올해 리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신설했다. 국제무대에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경쟁력 있는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아트스펙트럼2014'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10명 중 한 명을 뽑는다.

이완이 이 전시에서 선보인 '메이드 인' 프로젝트(2013~)는 대만과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현지에서 설탕과 비단, 황금과 같은 특산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평범한 아침마저도 전 지구적인 정치경제 상황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세계화 시대 아시아의 근대사와 산업화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구조주의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 4개국을 방문한 이완은 앞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을 거쳐 '메이드 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완은 "'메이드 인' 연작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문화, 사회의 이면과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아직 가야 할 8개국의 일정이 내년까지 잡혀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작업을 잘 완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고 전했다.



리움은 2001년부터 격년제로 '아트스펙트럼' 전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성장할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리움 큐레이터와 외부평론가, 큐레이터가 추천한 10명의 작가 중 별도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삼성미술관 플라토 개인전 기회를 준다.

시상식은 26일 리움에서 열린다. 수상작가 기념전은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시작된 '아트스펙트럼2014' 전은 6월29일 끝난다. 이완을 비롯해 김민애(조각·설치)·박보나(영상·퍼포먼스)·송호준(설치)·심래정(영상)·이은실(회화)·장현준(퍼포먼스)·정희승(사진·설치)·제니 조(회화)·천영미(조각·설치) 등이 참여하고 있다.

swryu@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